



## 신간 소개

### - 최미자 네 번째 수필집 -



수필은 나의 운명인가 보다. 어린 시절 느낌이 떠오르면 종이 위에 글을 쓰시던 부모님의 창의적인 일상처럼, 나도 그렇게 내 영혼으로 문학적 삶의 향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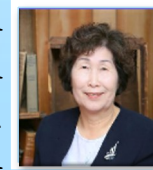


그는 책 머리말에서 “이민 초기에는 떠오르는 상념을 놓치기 싫어 가족이 잠든 새벽에 글을 몰래 썼다. 돌아보니 어느덧 50년이다. 수필은 나의 첫사랑이다”라고 했다.

### - 이희숙 첫 수필집 -



2018년 재미수필문학가협회를 만난 일은 후반부 인생의 빗장을 여는 것과 같았다. 글 모임을 통해 내 미숙한 언어 숲에서 숨 쉬고 있던 글들이 작은 나무가 되어 배움과 습작으로



성장했다. 수필의 숲을 가꾸며 호흡했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햇살 아래 65편을 내 무늬로 엮을 수 있어 가슴 벅차다.

## 2021년 ‘재미수필’ 제 23집 출간

### <재미수필 제 23집>

회원 44명 작품 수록

자유제 62편 / 테마: 여행, 가벼운 일탈 8편 /

특집: 4·29 폭동 30년, 그때를 회상하다 8편

제08회 재미수필문학상 수상작 1편

제16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5편

총434 페이지

구매 연락처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78호

# 프전수필

2022 Summer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재미수필문학가협회

Claremont 1994

01 협회장 에세이	이현숙	바캉스, 그 아련함
02 고전수필	윤오영	부끄러움
03 제17회 재미수필 신인상 공모		
04 회원수필	백인호	새 보금자리
06	최미자	청포도의 사랑
07	이경은의 <글쓰기 강의노트> #50 감성의 우물을 채워라	
08	최숙희	은퇴를 생각할 나이
09	여준영	고향으로
10	김수영	돌고래와 바다사자
12	최근자	아보카도 씨의 변신
13	박종진	그해 여름
14 추천수필	정희승	어느 오후의 평화
16 우리말 바꾸기		바꿔쓰면 좋은 표현
18 공부합시다	강원국	통찰력을 기르는 여섯 단계
20 여름호 행시	김수영 외 11명	<파란햇살>
협회 소식 및 타 문인협회 소식		
회원 신간 소개		최미자 <날아라 부겐빌리아 II> 이희숙 <내일의 나무를 심는다>

####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월례회-

ZOOM Meeting / 대면모임

- 연락처 -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KEAA)

4946 East 6th St., LA, CA 9002

웹사이트: <http://jaemisupil.com>

이메일: [jaemiupil2021@gmail.com](mailto:jaemiupil2021@gmail.com)

- 지역별 동네방 모임 -

(작품 합평, 문법 수업, 친목 도모 등)

벨리방 - 김화진/이리나 [cathrina0314@gmail.com](mailto:cathrina0314@gmail.com)

엘에이방 - 여준영/신혜원 [sokamike@hotmail.com](mailto:sokamike@hotmail.com)

토렌스방 - 김카니/최근자 [apoconnie@yahoo.com](mailto:apoconnie@yahoo.com)

온동네방 - 박진희/김민정 [jinheepgh@gmail.com](mailto:jinheepgh@gmail.com)

오렌지방A - 성민희/이희숙 [janeyu36@gmail.com](mailto:janeyu36@gmail.com)

오렌지방B - 한영/권조앤 [hahnyoung29@gmail.com](mailto:hahnyoung29@gmail.com)



와, 여름이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바다로, 산으로 한 번은 다녀와야 제대로 보낸 것 같은 때가 있었다. 이름하여 바캉스. 막상 떠나고 보면 고생인

데도 소풍날을 앞에 둔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을 꼬으며 기다렸다. 그 단어가 풍기는 노스텔지어. 그것은 추억이 서린 그리움이다. 이제는 잊히는 단어지만, 한때는 혁명적인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 더운 여름도 바캉스라는 설레는 연중행사가 있어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했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그날이 와서 들고 나는 시간보다 미리 계획을 짜고 상상으로 떠나는 것이 더 행복했다.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서 몇 날 며칠을 머릿속으로 즐긴 길을 다녀온다. 그 여행엔 뜻밖의 일들, 불편함이나 힘들거나 짜증스러운 일들이 끼어들지 못한다. 막상 바캉스를 떠나는 당일부터 끝날 때까지 상상만 못 한 여행이기 쉽다. 그런 줄 변연히 알면서도 여름이 오면 습관처럼 떠날 생각부터 한다. 오래된 관습의 중독성이다. 바캉스란 그 달짝지근한 여감은.

올여름도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짠다. 우리 가족은 휴양지로 가서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하고 조카네 가족은 젊은 사람답게 투어 관광을 원한다. 어느 쪽이 되던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에 검색한 곳을 짚어가며 계획을 짤 것이다. 미리 가는 여행의 달콤함에 빠지고 싶은 거다.

오래전 아버지도 매해 여름이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그 해는 바닷가 대신 집에서 세 시간 정도의 거리인 산과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강기슭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오빠는 텐트를 치고 우리는 시원한 물에 침병침병 뛰어들었다. 한참을 놀다 허기진 배로 뛰어

나오면, 엄마가 내민 삶은 옥수수과 닭죽은 꿀맛이었다. 별천지 같던 물놀이가 삼 일째 지날 때쯤, 하늘에 검은 구름이 잔뜩 깔리며 한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졌다. 소나기겠거니 하고 모두 텐트로 들어간 우리는 색다른 재미라고 킁킁대는데, 어느새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텐트가 비바람에 심하게 흔들렸다. 아버지와 오빠는 불일이 있어 시내에 가셨기에 우리는 무서움에 떨었다. 모래사장은 차오른 물살에 자취를 감추고, 자장가를 들려주던 실개울 물소리는 포효하는 동물의 울음같이 우렁차고 무섭게 쏟아져 내렸다. 비 맞은 생쥐가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개울 건너에 아버지 차가 보였다. 비가 오자 걱정이 되어 일을 제쳐두고 달려온 신 거였다. 어른 무릎을 오르내리던 물은 어느새 아버지의 가슴까지 왔다. 길가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밭줄 한쪽을 묶고 우리를 향해 건너왔다. 아버지는 우리가 있던 근처 나무에 나머지 줄을 연결했다. 우리를 하나씩 등에 업고 한 손은 줄을 잡으면서 개울을 건넜다. 내 차례가 되었다. 평소 과묵하고 엄해서 옆에 가기가 어려웠던 아버지 등에 업혀 떨어질세라 목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의 등보다 넓고 따스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가갈수록 아버지는 크지만 여린 가슴을 열어 보이셨다. 바캉스 하면 늘 그리운 아버지가 먼저 떠오른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살아오면서 함께 겪은 많은 기억이 사랑과 그리움으로 남아 가족의 중요성과 일체감을 느끼게 해 준다. 오늘 밤엔 조카네와 여행 계획으로 또 머리를 맞댈 것이다. 그들은 발랄하고 다이내믹한 여행을 떠 올릴 것이고, 우리는 별들이 총총히 피어 있는 계곡의 어느 산자락을 짚어볼 것이다. 🌸

## 부끄러움

윤오영(尹五榮, 1907년~1976년)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

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혼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가 몸매며 옷매무새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

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는 썰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고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짹짹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돛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을 때 뒤를 흘끗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 여름 일기 · 1

이해인

여름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넣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매일을 가꾸며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 번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 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엮디어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 오고 싶다



## 제 17회 재미수필 신인상 공모

본 협회에서는 제17회 신인상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필가로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신인상 공모에는 글쓰기에 취미를 가진 해외 한인으로 문단에 미등단 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이민의 이야기, 자전적인 많은 편린을 수필로 그려 작가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 응모요령: 신작 수필 3편 - A4 용지 1장 반  
(다른 어느 매체에도 발표하지 않은 작품)
- \* 시상: 당선작 - 500달러 & 상패  
가작 - 300달러 & 상패  
장려 - 상패
- \* 원고 마감: 2022년 7월 31일
- \* 입상자 발표: 2022년 8월 개별 통보
- \* 시상식: 2022년 12월 <재미수필 24집> 출판기념회
- \* 접수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EAA)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문의전화: 323-440-1051

### \* 유의사항

- 원고 말미에 주소와 전화번호 및 본명 기재할 것.
-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작품 수준에 따라 당선, 가작, 장려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현재 활동 중인 기성문인의 응모는 무효 처리함.
- 다른 곳에 응모한 작품이나 허위, 표절이 발견될 시 수상을 취소함.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이현숙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년간 뉴욕에서 살던 딸 내외가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도심에 서북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섬머린 Summerlin이란 곳이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을 올 때도 마음 한 모퉁이엔 갈등과 희망에 부푼 섭섭한 심정을 안고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다 고국을 떠나지 않았던가.

유년 시절에도 정든 사람과 헤어질 땐 며칠 동안은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젊었을 때도 그러했다. 오래 살던 정든 동네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큰마음 먹어야 가능하다. 물론 아이들 학교와 직장 문제로 부득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지간한 문제점은 감수할 수 있을 땐 이사를 포기한 적도 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미증유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나의 삶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나이도 먹고 몸도 예전만 못하다. 아내도 신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잔인한 세월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파는 보따리 장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딸은 엄마에게 몸도 불편하신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나는 딸의 제안에 고마우면서도 진퇴양난이다. 42년이란 세월을 보낸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앞으로의 여생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시원섭섭하다. 누구든지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쇠약해지는 건강을 막을 수 없지 않은가.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론가 사라지는지 점점 찾아볼 수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1년 동안은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 보니 신장이 안 좋은 아내를 돌보기가 더 힘들었다. 2년째 되는 해는 소변에서 붉은 혈류가 흘러나와 검사받았는데 방광암이란 진단이 나왔다. 다행히 네 차례의 시술 끝에 치료에 완치가 된 경험을 얻은 나는 역시 급할 때 병원에라도 같이 가 줄 사람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라스베이거스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1905년 사막 위에 세워졌다.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메카로, 문화 관광과 휴식의 도시로 탈바꿈되었다. 9월이 오면 불볕더위도 어쩔 수 없이 한풀 꺾인다. 몇 차례 이곳에 와서 지내다 보니 낮에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더위도 아침저녁이면 선선하여 견딜만하다. 7·8월에는 화씨 120도 더위로 실내 생활을 하고 겨울에는 추운 사막의 건조한 바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붉은 민둥 바위산에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바위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수억 년 동안 간직해 내려오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 부족으로 나무가 거의 없지만 이사 온 이 동네는 가로수가 제법 잘 정돈되었다. 주택가 정원에는 나무들이 우거지고 관리가 잘 된 공원을 비롯하여 전원 못지않은 풍치를 자아낸다. 새로 디자인된 동네로 깨끗하고 온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야단법석을 떨던 코로나바이러스도 잊어버린 채 한적한 섬머린 거리를 딸과 아내와 셋이서 걷고 있자니 도시 속에 시골길을

### 유튜브 채널 <재미수필> 소개



- 1회: 5월 06일 <첫방송> 협회 연혁과 활동 소개
- 2회: 5월 07일 동인지<재미수필> 계간<퓨전수필> 소개
- 3회: 5월 22일 제4회 재미수필문학상 유숙자 수필가 편
- 4회: 5월 29일 제6회 재미수필문학상 공순해 수필가 편
- 5회: 6월 05일 제7회 재미수필문학상 조만연 수필가 편
- 6회: 6월 11일 제8회 재미수필문학상 이현숙 수필가 편
- 7회: 6월 16일 협회 회원 백인호 수필가 편
- 8회: 6월 21일 협회 회원 조옥동 수필가 편
- 9회: 6월 27일 협회 회원 김영교 수필가 편

### 동네방 모임 5월~7월



- 밸리방 (Zoom)
- 엘에이방 (Zoom) 6월 12일 6월 26일 7월 10일(예정)
- 토렌스방 (대면모임) 5월 25일 6월 22일 7월 27일(예정)
- 오렌지방A (Zoom) 6월 20일 7월 18일(예정)
- 오렌지방B (Zoom) 5월 2일/16일 6월 6일 7월 18일(예정)
- 온동네방 (Zoom) 6월26일 7월 24일(예정)

걷는 기분이다. 길가에 마련된 벤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날의 옛 추억을 더듬노라면 웃음꽃이 피어오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로 나오는 질문이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까. 아직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생각하니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거리는 조용하지만, 상점 안을 들여다보면 손님들이 북적이는 걸 보니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았다. 비록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신생 상가지만, 동네 사람들 외에도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

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주거비는 물론, 물가가 저렴하고 자연재해도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장단점이 있는 법, 그래서 옛말에 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루하루의 긴박한 삶에 위안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동네의 공동체에 문혀보면 어떨까.

역시 노후에는 병원이 가는 일이 문제다. 🌸



오래전에 나는 친절집처럼 포도나무를 심었다. 겨울이면 가지들을 자르며 씨가 많이 있는 청포도나무는 없애고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만 남겼다. 첫해는 귀여운 열매가 신기해 큰 대야로 따서 나누어 먹었는데, 그 후 물과 영양부족인지 좀처럼 포도를 구경할 수 없었다. 어쩌다 달려 종이봉지를 싸주며 기대했지만, 밤이면 너구리랑 쥐가 봉지까지 뜯고 송두리째 먹어치웠다. 그런데 어느 겨울인가, 집에 일하러 온 라티노 청년이 자기 집에 심고 싶으니 가지를 하나 잘라달라고 했다. 그리해주고 나도 잘라 심어보았다. 물을 주며 돌보았더니 꺾꽂이가 성공하여 이듬해 봄에 그 포도나무에 새순이 돌아나는 게 아닌가. 여름엔 문을 열고 뒤뜰로 나가면 안마당 열기가 대단하여 어린 시절처럼 시원한 포도나무 그늘이 생각나서 심었다. 올해엔 비가 자주 내려 좀 열렸는데, 곰팡이와 병 걸린 것도 있지만 몇 송이는 괜찮다.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니 설익은 포도이지만 따먹어보았다. 놀랍게도 신맛이 없다. 보랏빛 색깔도 완벽하지 않으니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도 없다.

못생긴 유기농 포도를 가족끼리 먹으며 옛날 추억으로 돌아간다. 한국전쟁 때 아버지는 직접 감독하고 구상하여 지은 서석동 집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남으셨다. 가족들만 이모할머니의 시댁인 보성의 수문재로 피난을 보냈다. 그때 자주 남로당 공산 당원들이 찾아왔는데, 이모할아버지가 그들을 잘 달래 보냈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며 어머니는 늘 회상했다. 또 어린 나에게는 보리죽을 먹여 자주 설사를 했다고 웃으셨다.

우리 국군이 고향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마당의 청포도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 마침 아버지가 실직하여 곤궁할 때라 그 포도를 큰 대야에 따서 동네 가게에서 팔고 바꾸어 먹었던 이야기를 자주 어머니는 들먹거리셨다. 어디 그뿐인가. 여름이면 온 동네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었고, 오빠와 동생이랑 친구랑 대롱대롱 매달려 따먹던 간식거리여서 지금도 생각하면 배가 부르다. 우리 집 앞마당에 서있던 여러 그루의 포도나무.

또, 아버지는 청포도 나무 곁에 향아리를 묻어 놓고 남자들은 소변을 보게 하여 그 삭힌 거름을 나무들에게 먹이곤 했다. 요즈음 현대식 집 구조에 사는 아이들은 아프리카 같은 미개발지역에 자원봉사를 가면 재래식 화장실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며칠째 볼일을 못 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우린 냄새가 나는 재래식 변소에 익숙했기에 그런 것쯤은 견디어 낼 수가 있는데 말이다. 잘 먹고 호강스럽게만 키워서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들의 미래를 그들의 부모는 교육 측면에서 상상해 보지 못한 것 같다.

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던 딸은 인터넷으로 외할아버지의 애청곡을 찾아 크게 틀어 놓는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 백 년도 지났지만, 얼굴도 모르는 손녀딸이 외할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라는 말에 ‘청포도 사랑’ 노래를 신나게 따라 큰소리로 부른다.

청포도 나무가 있는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시며 나를 위해서는 그네를,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서는 철봉을 만들어 주셨던 올 아버지. 참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웠지만, 멋쟁이고 예술적인 재능을

### #50 감성의 우물을 채워라 (여행과 전시회, 공연장을 열심히 가라)

감수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작가라면 노력해야 한다. 이 우물이 말라버리면 글쓰기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쇠뿔 굴러가는 소리에도 옥구슬처럼 고운 목소리로 웃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우물에 물을 채워주어야 한다.

마중물이라도 듬뿍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한다. 그 마중물이 바로 나는 ‘여행, 음악, 미술’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가면, 보고 듣고 느낀다.

음악회에 가면 멋진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음악이 가득한 공간에 잠시라도 머물게 된다. 귀로 듣지만, 온몸이 느낀다.

그림 전시회에 가면 그 강렬한 색채들이, 화가들의 삶의 열정이 그림들을 통해 나에게로 들어온다.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한번은 바리톤 성악가하고 음악회를 같이 갔는데, 옆에서 마구 졸고 있는 게 아닌가. 창피하기도 해서 나는 공연이 다 끝나고 “코골까봐 걱정했어요. 왜 그렇게 졸아요? 음악가가 돼 가지고서...” 라고 눈을 흘겼더니, “걱정 마세요, 저는 졸고 있어도 제 몸이 다 기억해요.” 한다. 그 멋진 말에 혹해서 그를 용서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강생들과 그림 전시회에 다녀오면 감상문을 꼭 써 보라고 숙제를 내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단 한 번도 같은 주제를 써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사람이 각양각색이고, 삶의 궤적이 다르고, 살아온 체험의 커가 다르니 보는 것도 다르다. 참 재미있고도 신기하다. 이것은 여행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같이 갔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거길 다녀왔나 싶게 다른 시선으로 여행지를 바라보게 된다.


나와 네가 다르고, 우리와 그들이 이렇게 다르다. 하지만 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여행과 음악,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고, 글을 쓰면서 ‘다름을 깨닫는 기쁨’을 갖는다. 감수성의 우물을 채우고 싶으면, 마중물을 넣어라. 그러면 달콤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Tip: 다 말하면 안 된다.

미술 전시회나 음악회에 갈 때 가슴에 그림이나 음악을 잔뜩 넣어가지고 오라. 다만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와야 몸에 기(氣)가 쌓여 독후감 글을 잘 쓸 수 있다.

둘이나 단체로 갈 때는 남의 의견을 잘 들어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는 하되 마음속을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상하게 한번 내뱉은 말은 글로 잘 써지지 않기 때문이다.

#### 이경은의 <글쓰기 강의 노트>

지닌 아버지는 사진기가 있어 종종 동네 아이들을 모아 놓고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다. 항상 앨범을 만들어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해 주셨던 자상한 분이셨다. 구석구석 부모님의 사랑이 넘실거리던 아담한 친정집. 한때는 돈을 모아 다시 고향집을 사서 살고 싶다는 희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그리움으로 꿈속에서만 만난다. 부지런하시고 정직하고 다정했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들이 나의 삶 속에 늘 포도 넝쿨처럼 출렁거린다. 



‘엄마가 심심하다며 또 미국을 다녀와야겠다고 하셔. 심지어 뉴욕이랑 볼티모어 비행기 표만 끊어주면 혼자서 손녀들을 만나고 LA 언니 집으로 가겠다고. 엄

마 연세에 비행기 자주 타는 것도 나쁘니,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있어 볼게.’ 서울 여동생이 카톡을 보냈다. 올해 87세인 엄마는 치매 아버지를 돌보며 2년여를 집에 갇혀 지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간의 감옥살이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8개월 동안 미국에 두 차례 오셨다. 한번은 나의 이사를 도우러 LA에, 또 한번은 연구원으로 볼티모어에 살게 된 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여동생을 따라 워싱턴 DC에 오셨다.

연로한 엄마와 언제 또 장거리 여행을 하겠나 싶어 나도 합류했다. 뉴욕 사는 내 딸도 휴가를 얻으니 엄마, 두 딸, 손녀 3대의 여행이 되었다. 볼티모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을 방문했다. ”나는 차에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끼리 보고 와라. 오래 못 걸어.“ 엄마는 항상 건강하고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다.

바쁜 이민 생활을 꾸리느라 변변한 여가활동이나 제대로 된 장거리 여행은 생략하고 살았다. 남편은 이민 가장의 책임감으로 자기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등의 여행 관련 영상을 보면 충분하다며 아이들과 나만 외국 여행을 가게 했다. 이제 이민 생활도 안정되어 가족여행을 하고 싶지만, 성인이 된 아이들은 부모와의 여행은 원하지 않는다. 인생은 이렇듯 엇박자이다.

코로나로 가게의 몇몇 손님이 사망하고 친정아버지를 포함 가까운 집안 어른 몇 분이 근래 돌아가셨다. 인생 한 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세월 다 가는 건 아닌가, 겁이 덜컥 났다.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여행을 떠나라’라는 여행사 광고 문구가 가슴에 와닿는다.

갱년기를 맞아 말이 많아지는 남편과 가능한 말을 안 섞으려 하지만 여행 계획을 짤 때는 소풍 전날 어린애들처럼 의기투합하니 우습다. 은퇴하고 부부만 홀가분하게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자며 유튜브와 블로그를 찾아본다. 여러 나라를 짧고 분주하게 관광하기보다는 한 곳에 한 달간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꿈도 꾸다.

가게를 닫는 일요일이면 은퇴를 미리 연습하는 기분으로 산으로 들로 나갈 계획을 짠다. ‘오늘은 문화지수를 높여볼까’하며 게티 센터를 찾았다. 다양한 미술 작품 외에도 탁 트인 전망과 아름다운 정원은 하루 나들이 코스로 부족함이 없다. 코로나로 예약된 손님만 받아 붐비지 않는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싱그러운 나무 그늘 밑에 자리한 가든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곁들여 커피를 마시니 누구도 부럽지 않은 순간이다.

정원을 산책하다가 도슨트의 설명을 듣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다. 소그룹이라 옆에 가서 설명을 들었다. 마침 도슨트가 한국분이라 반가웠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증명하듯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게티에 여러 번 왔지만, 건물과 정원이 새롭다. 투어가 끝나고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20여 년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게티에서 도슨트로 일한 지 30년이 됐다 한다. 인생 2모작을 멋지게 사는 ‘지혜롭게 나이 드는 여성’ ‘달고 싶은 여성’이다. 내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흥미 있는 분야를 공부해 뜻깊은 봉사활동을 하는 분을 만나니, 은퇴해서 여행 다닐 생각만 했던 내가 부끄럽다. 내가 흥미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



11년 만에 내 고향 부산을 방문했다. 2011년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방문한 이래 첫 방문이다. 나에게 달라진 것이라면 한국인

이 아닌 외국인 자격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 국적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별다르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인천 공항 입국 심사대 외국인 줄에 서게 되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두 달 전 새벽, 한국 사는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안절부절못했다.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COVID-19로 인한 일주일 격리와 까다로운 절차는 나의 다급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다행히 일주일 입원 후 퇴원하셨다는 소식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부산에 계신 부모님 곁에 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4월부터 한국 입국 시 일주일 격리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비행기표를 끊었다. 이처럼 간단한 것을, 바쁘고 여유 없으므로 자신을 정당화한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더한 효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한몫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불효자식이라고 꼬리표를 붙이게 될 것 같았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KTX 광명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11년 만에 보는 한국의 모습을 뇌리에 담으려 열심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실눈을 뜨지 않아도 구름 낀 듯 희미하게 비쳐오는 아침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미세먼지 때문인가 추측해 보았다. 공단

이 많은 시흥시를 지나갈 때,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역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고단한 현대인의 삶의 한 자락을 볼 수 있었다.

처음 타 보는 KTX는 예전 새마을호 기차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구글맵을 켜 놓고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일일이 대조해 보고 한국의 땅을 공부했다. 한국에 살 때는 별 관심 없던 한국의 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에 담고 싶었다.

부산역 광장에 내려서자 예전의 익숙한 빌딩은 온데간데없고 고층 건물들이 광장 양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본가로 가는 택시에서 바라본 부산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그 부산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말이 잘 통하는 외국에 왔구나. 미국인이 영국을 여행할 때 느끼는 기분이 이러할까’

본가 앞에 택시가 서자 가슴이 뛰었다. 무거운 여행 가방 두 개를 택시 트렁크에서 끄집어낸 뒤, 내가 이십 대를 보냈던 집을 바라보았다. 내가 나이가 든 만큼 집도 나이를 먹은 듯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문에서 나는 인기척에 어머니가 현관 밖으로 얼굴을 내미셨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카톡 화상통화로 뵈었던 것보다 더 늙으신 나의 어머니.

나를 보자 반가워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왔나? 고생 많았재.”

나는 현관에서 어머니를 안아 드리며 그간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물었다. 현관 안에서 계시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내게 하신 말씀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셨다.

P 10쪽 ➡

## 고향에서 / 여준영


### P 9 쪽에서 연결

11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께 큰절을 올렸다. 이 절을 하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달려온 사람처럼 나는 정성을 다해 절을 드렸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뇌출혈이 있던 날부터 퇴원하실 때까지의 자초지종을 들려주셨다. 배우가 독백하듯 마치 내가 오면 말해주리라 걱정하신 듯했다. 나는 짐을 풀 사이도 없이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허리가 더 구부정해지고 기력이 떨어진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어머니에게서 지난 11년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 간간이 어머니는 내 모습을 살피셨고, 어머니 또한 내게 지워진 지난 11년의 무게를 느끼시는 듯했다. 이야기 끝에 어머니는 내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 있는 횡집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셨다. 흔쾌히 두 분과 함께 집 밖을 나섰는데,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신지 텅텅벌벌 걸으시고, 어머니는 굽어진 등에 지팡이를 짚으셨다. 1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식사 뒤 셀피를 찍었다. 13시간 반의 비행기 탑승과 부산까지 기차로 내려온 내 초췌한 모습 뒤로,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린 웃음을 짓고 계셨다. 마침내 나는 고향집에 왔고, 한 달 동안 어머니, 아버지와의 새로운 추억을 쌓을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다. 

## 돌고래와 바다사자 / 김수영



돌고래 하면 샌디에이고 Sea World에서 보았던 돌고래 쇼가 생각나고 바다사자 하면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소설 마지막 끝부분이 생각난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바다사자를 꿈꾸며 다시 바다에 고기잡이 가는 꿈을 꾸다. 실지로 내 눈으로는 바다사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물개는 많이 보았는데 생김새가 비슷해서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다.

여름 방학을 맞이한 손녀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북가주에 살다 보니 그곳은 거의 여행을 다 가 보아서 이번엔 남가주에서 여행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여행지를 미리 다 정해 놓고 방갈로를 예약해 놓고 와서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단체관광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좀 언짢았지만, 함께 따라나섰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좀 이탈해서 변화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겐 있다. 바로 여행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청량감을 준다.

여행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는가. 공휴일이 다가오거나 자녀들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 갈 계획을 세운다. 딸이 샌디에이고에 방갈로를 일주일 예약을 해 두어 그곳에 기거하며 관광을 하기로 했다. 호텔보다 숙박비가 저렴하고 깨끗하고 사생활이 보장되고 참 좋았다. 더욱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바닷바람이 불어와 에어컨 켜지 않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

34년 전에 샌디에이고에서 돌고래 쇼를 보아서 이번엔 얼마나 달라졌나 호기심으로 한 번 가 보고 싶었던 차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애들처럼 은근히 속으로 기대를 잔뜩 했었다.

딸이 일정을 짜 놓았는데 Sea World와 동물원을 가기로 하고 보트 투어도 하기로 했다. 막상 Sea World와 동물원을 가려고 하니 두 손녀딸이 안 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반대했다. 이유를 물으니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 볼 수 없다고 했다. 입장권을 사면 동물 학대를 돕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물들이 자유 없이 인간이 시키는 대로 우리에게 간혀서 아니면 물속에 간혀서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자기들 눈이 즐거운 대로 구경을 한다. 동물 처지에서 보면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훈련받고 한낱 노리갯감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럽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딸이나 내가 화를 내었지만, 손녀들의 말을 듣고 보니 사실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딸과 나는 손녀들에게 행복하고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꾸었다. 사실 2년 전에 제주도에 단체 관광을 갔을 때 서커스 관광이 스케줄로 짜여 있어서 관람하게 되었다. 코끼리들이 훈련을 잘 받아 조련사들이 시키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관람을 다 끝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우리 가족은 이구동성으로 코끼리들이 참 불쌍하다는 말했다.

관람할 때는 재주를 잘 부려서 재미가 좋아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 하나 코끼리들은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서 새끼를 키우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인데 그 큰 몸집을 가지고 우

리에 갇혀서 고된 훈련을 견뎌야 하는 삶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관람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즐거움을 위해 Sea World와 동물원을 또 가려고 했으니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생각하니 손녀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우리는 La Jolla Cove에 서식하는 바다사자(Sea lion)를 구경하러 갔다. 수십 마리가 바닷가 바위 위에 기어 나와 누워 있었고 더러는 모래사장에도 누워 있었다. 햇빛에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한 시간 가량 나무다리 위에서 그들을 관찰하며 지켜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그들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해엄치고 싶으면 해엄치고 마냥 바위나 모래사장에 드러누워 관광객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야말로 자유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Sea World의 돌고래나 동물원의 동물들이나 서커스단의 코끼리들과는 차원이 높은 삶을 즐기고 있었다.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면서 손녀들이 반대한 이유를 곱씹으며 심장이 따뜻한 손녀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





여름도 가기 전에 훌쩍 가을이 와 있던, 지난해 늦여름 토런스 동네방 모임이 회원 집에서 있었다. 집은 주인을 닮는 말처럼 정갈하면서 따스함이 배어 나오는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물을 적게 주어도 생명력이 강한 선인장 종류로 꾸며진 앞마당이 일품이었다.

밝은 햇살 가득 담은 부엌 창가엔 크고 작은 유리병들이 리듬을 타고 놓여 있었다. 투명한 유리병은 호리병 모양이었고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어린아이 손바닥처럼 여린 잎새들이 할랑거렸다. 무엇일까. 호기심에 물으니 아보카도 씨를 반쯤 물에 담가 놓으면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잎새를 피운다고 했다. 처음 본 화초였다. 키워보고 싶었다.

왜 호리병 모양의 병이 제격인지 알 것 같았다. 아보카도 씨를 풍덩 물에 담가놓는 것이 아니라 반쯤 물에 잠겨야 했다. 신나는 과제를 받은 학생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맘에 드는 병을 구하느라 한동안 즐거웠다. 애쓰며 구입한 유리병에 아보카도 씨를 반쯤 담가놓고 자주 눈길을 주며 살폈다.

그동안 화초를 키워보며 터득한 화초의 성장 리듬에 의하면 변화해야 한다고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어도 아보카도 씨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언제 싹이 날까요? 잊고 기다리면 싹이 나

요. 우문현답이었다. 잊자. 잊고 기다리며 산 세월이 얼마인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듯, 어느 날 갑자기 아보카도 씨가 적 갈라져 있는 게 아닌가. 신기했다. 생명의 신비에 또 감탄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듯, 갈라진 씨앗 사이로 뿌리가 내리고 실 같은 연약한 싹이 힘겹게 나오더니 쭉욱 가지를 올리고 잎새를 펼치는 게 아닌가. 무려 8개월이 걸린 긴 여정이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진 아보카도 잎새는 볼 때마다 내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나를 보세요. 그토록 단단한 씨를 가르고 태어난 내가 있잖아요.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랍니다. 이겨내고 건디는 것. 🌸





어느 해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이 무릎까지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 재산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책, 서류, 사진 등이 침수되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보았다. 그래도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젖은 물건을 정리하는데 오래되어 빗바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내가 대학 2학년이던 1975년 8월 17일에 썼던 그 편지는 결국 부쳐지지 않고 책갈피 속에 아무도 몰래 감춰져 있다가 정확히 38년 만에 다시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어느 여학생에게 쓴 편지였다. 갑자기 그해 여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우리는 방학이 되자 용감하게 단둘이 부산에 갔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내놔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착실한 청년이었다. 그런 내가 미팅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꼬드겨 2박 3일 여행을 갔던 대박 사건이었다. 암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만, 정작 부뚜막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여행 후 나는 그 여학생의 얼굴까지 직접 그려 넣은 편지를 써 놓고도 용기가 없어서 감히 부치지 못했던가 보다. 편지 속 긴 생머리의 촌스러운 그녀는 나이도 안 먹은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행여나 식구들에게 들킬까 염려되어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잘 말려서 다시 꼭꼭 숨겨 두었다. 그러자 걱정이 생겼다. 내가 죽은 후 혹시 이 편지가 세상에 나오면 영영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풀이 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딸에게 편지를 보였다.

“사진에서 본 엄마 젊었을 때 얼굴이랑 똑같다. 우리 아빠 그림도 잘 그리네.”라고 딸이 말하자, 아내는 “실물이 훨씬 괜찮았는데, 어쨌든 내가 그때 이 편지 받았으면 네 아빠는 바로 채였겠다. 뽀뽀뽀 글씨는 그나마 봐주겠는데 내용은 왜 이렇게 유치하니?”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지만, 어찌다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해 여름 부산 여행은 그럴 줄 알고 미리 간 신혼여행인 셈이었다.

써놓고도 부치지 못했던 편지는 근 40년이 지나 비로소 자기 주인에게 전해졌고, 그러자 4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안동 원이 엄마의 편지'가 생각났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무렵, 병으로 일찍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한글 편지가 최근에 발견되어 진한 감동을 준 사건이다.

여름이 깊어가는 사이 장맛비 덕에 유치한 편지도 나오고 옛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난다. 화단에는 빨간 글라디올러스와 칸나가 아름답게 피었고, 샛노란 해바라기는 한창 키가 크고 있으며, 옥잠화와 갖가지 색깔의 장미와 백합 계의 이름 모를 꽃들이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고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한테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나는 답례를 하고 단상을 내려오는 지휘자가 된 기분이다. 세월이 흘러 추억을 먹고 사는 나이가 돼버린 지금도 여름은 여전히 화려했고, 가족은 소중한, 우리 인생은 아름답다. 



대화할 때 서로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나 사물은 보통 문장에서 생략한다. 정황으로 알 수 있다면 주어나 목적어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애써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계속하면 오히려 대화가 걸끄러워진다. 우리말의 중요한 특징이다. 점심을 먹다가 아내가 묻는다.

“부쳤어요?”

역시 문장의 주요 성분을 생략해버린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미루어 짐작할 거란 의미이다. 아내가 묻는 내용을 반듯한 문장으로 재구성해 보면, ‘오늘 군에 있는 큰애에게 소포를 부쳤어요?’쯤 되겠다. 오늘이나 큰애, 소포 등은 서로 묵인하는 것이므로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궁금한, ‘부쳤어요?’라는 동사만 남겨 놓는다. 덧붙이지 사라지는 행위, 즉 부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나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다. 편안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생략되는 낱말이 많다.

“그럼.”

나도 짧게 대답한다.

그것을 끝으로 식탁에서 오가는 말이 없다. 아내는 더는 묻지 않는다. 궁금한 게 없는 모양이다. 긴 침묵이 이어진다. 우린 각자 묵묵히 밥을 떠먹는다. 티브이를 시청하지 않아서인지 집 안이 더 조용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침묵의 내용은 무관심이나 불화가 조성하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우린 이미 서로의 존재를 기꺼운 마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새삼 서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다. 더불어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어떤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제

그것까지,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것까지 기꺼이 다 수용한다. 그러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의 침묵에는 깊은 신뢰가 깃들어 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아내가 커피를 내 놓는다. 더치커피다.

나는 더치커피가 좋다. 오늘처럼 날씨가 더운 날에는 특히. 원두를 갈아 향이 날아가지 않게 찬물로 내리는데, 방울방울 떨어지므로 보통 12시간쯤 걸린다. 그걸 다시 냉장고에서 사나흘 숙성해 두었다가 마신다. 슬로우 커피인 셈이다. 준비하는데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어느 때든 바로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액에 찬물을 알맞게 붓고 얼음을 살짝 띄워 마시면 되니까.

정갈하게 가라앉은 맛과 그 맛에 은은하게 조응하는 향이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나는 이런 단조로운 일상에 불만이 없다. 어쩌면 늘 바라는 것인지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은 벗어나야 할 답답한 감옥이 아니라, 다듬고 손보면서 나날이 새롭게 구축해야 할 삶의 안식처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우연과 무질서가 개입하는가. 우리의 일상은 사회라는 바다에 불안하게 떠 있는 배와 같다. 늘 부유하면서 흔들린다. 폭풍우나 예기치 않은 기관 고장으로 의지와 무관하게 침몰한 배도 살면서 여럿 봤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노력과 애정 어린 실천을 요구한다. 그것은 기적 같은 성취다.

“어때요?”

다시 아내가 묻는다. 커피 맛이 어떠냐는 거다. 이번에는 질문의 방향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다. 행위가 아닌 느낌을 묻고 있으므로. 하지만 그것 역시 덧붙이지 사라지는 것이다.

“아주 우아해.”

내 느낌을 말해준다. 결코 과장법을 쓴 게 아니다. 품위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려다 그만둔다.

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것,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부단히 확인하는 걸까? 삶을 추동하는 힘은 이런 덧없는 것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닐까? 동사나 형용사를 대화에서 생략하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는 것은(우리말에서 술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생략하지 않는다), 덧없이 실체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인생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짝은 그렇다. 선물을 받은 아내가 감동하는 것은 늘 선물 자체가 아니라 정성을 담뿍 담아 건네는 나의 행위였다. 그때마다 아내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어머, 너무 예뻐요!” 물론 그런 아내의 반응 역시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었다.

맛이 들뜨지 않는, 찬물 속에서 잘 발효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한다.

우린 지금까지 비교적 조용히 흘러왔다. 상대의 존재를 아무런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며, 서로가 묵인하는 사물에 둘러싸여,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표현하면서.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워낙 짐짓하고 싱거워서 사랑이라 부르자니 웬지 쑥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그렇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단언하지도 못하겠다. 아무튼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관계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랑,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다소 거추장스러운 감정이다. 철 지난 옷같이. 우린 이미 새로운 계절에 있다. 그러고 보니 시인 랭보는 사랑은 재발명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제7회 윤오영 문학상 2021>

#### [ 드러내기와 드러내지 않기 ]

수필은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조문학(自照文學), 고백문학이라고도 한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거울에 비춰내듯 드러내는 글이다. 허위, 과장이 아닌 진실과 순수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수필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러내는 모습을 취하고, 독자들은 글을 통해 작자의 삶과 인생을 보게 된다. 작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이고, 단점, 취약점, 잘못된 일 등은 감추고 싶어 한다.

형용사와 수식어를 남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독자를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러내는 문학이라고 하지만, 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선 안 된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러내는 행위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독자들은 성공담보다도 오히려 실패담에서 교훈을 얻으며, 화려하고 위대한 일보다 소외되고 눈에 띄지 않은 것에 대해 애정에 관심을 갖는다. 작가가 자랑, 과시, 좋은 점만을 드러내지 않고 나쁜 점, 취약점도 드러내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독자는 바라고 있다.

글을 쓰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드러내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내야 하고,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와 진실 앞에서 생사를 걸 수 있는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문제다. 드러내야 할 것은 개인성, 일과성, 일시성이 아닌 공공성, 지속성, 영원성이 있는 가치와 의미에 닿아 있어야 하며, 절제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은 자랑, 과시, 과장, 증오, 분노 등 독자들의 삶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각각의 미래 - 저마다의 앞날	내복 - 속옷	방목 - 놓아 먹이기
간격으로 - 사이를 두고	냉정하다 - 쌀쌀하다, 차갑다	배회하다 - 헤매다
간식 - 새참, 셋밥	노골적 - 드러내놓고, 까놓고	변하다 - 바뀌다, 바뀌었던
갈색 - 밤색, 밤빛	녹색 - 풀빛	변했다- 바뀌었다
감동적인 - 감동스런	단서를 달다 - 덧붙이다	보상 - 갚음
감미롭다 - 달콤하다	당시 - 때	복개되면서 - 덮이면서
감촉 - 느낌	당황해 - 어쩔 줄 모르고	부른다 - 말한다,
거대한 - 크나큰	대가 - 값	부화 - 알 깨기,
거실 - 거첫방	대사 - 무대말	부화할 - 깨어날
건조한 - 마른	대작 - 큰 작품	불가능한 - 할 수 없는, 안 되는
게임 - 놀이	대화를 나누다 - 말을 주고받다	불가사의하다 -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 결과로는	도로 - 길	불리고 있던/소문이 나던, 알려졌던
경멸 - 멸시	도전적인 모습 - 도전하는 모습, 싸움	비명- 외마디소리
경멸하는 - 업신여기는 깔보는	거는 모습, 맞서는 모습	비에 - 슬픔
경이로운 - 놀라운	도착하다 - 닿다, 나선다	비하면 - 대면, 견주면
계곡 - 골짜기	동시 - 함께	사려깊은 - 생각이 깊은
계기 - 기회	따라갔어야 하는데 - 따라가야했는데	산소 - 무덤
계속 - 잇달아, 그대로, 자꾸, 쭉, 늘, 언	땡깡 - 간질병	삼삼오오 - 여기저기
제나	마부 - 말꾼, 말몰이	삽화 - 그림, 책그림
계절 - 철	막무가내 - 어찌할 수 없다	생애 - 평생, 삶
계주 - 이어달리기	만끽하고 - 한껏 느끼고, 실컷 맛보고	서서히 - 조금씩, 차츰, 점점
고대 - 옛, 먼 옛날	말이 안 통하냐 - 말을 못 알아듣냐	선망하다 - 부러워하다
고통스런 - 아픈	말했었다 - 말했다	선불 - 미리 치르다
교실의자 - 결상	매립을 하다 - 메워버리다	선천적인 - 타고난
국방색 - 풀빛	매일 - 날마다	설득하다 - 알아듣도록 하다
굴착기 - 삽차	매일아침 - 아침마다, 날마다	세워진 - 서 있는
권태 - 게으름	모두 - 죄다	소망 - 희망
그 후 - 그뒤	모래사장 - 모래밭	소문이 자자하다 - 소문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런데도	무관심해도 - 관심 없어도	소박하다 - 수수하다, 간소하다
그만두는 수가 있어도, 그만두더라도	무조건 - 덮어놓고	소음 - 시끄러운 소리
극복하다 - 이겨내다, 뛰어넘다, 참고	묵묵히 - 말없이	수로 - 도랑, 물길, 못
견디다	문틈 사이로 - 문틈으로	속연하다 - 익숙하다
극에 달해 - 이르러	물건 하역 - 짐 부리다	순서 - 차례
극적 - 희한하게	미소 - 웃음	순식간에 - 눈 깜짝 할 새
근처 - 부근	미아 - 잃어버린 아이	습관 - 버릇
금실 좋은 - 사이좋은	반복해서 - 되풀이해서	승부 - 승패, 결판
급기야 - 마침내, 드디어	반점 - 점 무늬	시장통 - 시장길, 시장거리, 시장골목
기간동안 - (겹말) 기간에	발랄하고 - 싱싱하고, 생기가 넘치고	시합 - 경기, 운동경기
기억난다 - 생각난다	발상 - 생각	식량 - 양식

식사시간 - 끼니, 때, 밥 때  
 식탁 - 밥상  
 신경 - 마음  
 신경 쓰지마 - 걱정 하지 마  
 신경 쓰지 말고 - 마음 쓰지 말고  
 신경질 부린다 - 짜증낸다  
 신음소리 - 앓는 소리, 아픈 소리  
 신호 - 알린다  
 심상치 - 예사롭지  
 안도의 한숨을 - 마음 놓고 한숨을  
 안이한 - 쉬운, 편한  
 야생오리 - 들오리  
 야생화 - 산꽃, 들꽃  
 야채 - 나물, 채소  
 어이! - 이봐  
 여름과의 이별 - 여름과 이별  
 역할 - 노릇, 할 일  
 열명남짓한 - 여남은, 여남은 되는  
 영특하다 - 슬기롭다,  
 오산이야 - 잘못이야  
 오열하다 - 목메어 울다, 울부짖다  
 와라 - 오너라  
 와중에 - 소용돌이 속, 판, 복새판  
 왔었다 - 왔다  
 우아한 - 아름다운  
 원래 - 본디, 처음부터  
 원하는 - 바라는  
 위치 - 자리  
 유리창을 통해 - 유리창 너머로  
 유유히 - 천천히  
 은밀하게 - 남모르게  
 음성 - 목소리  
 의기양양 - 기세가 당당해져서, 우쭐  
 해져서  
 의외로 - 뜻밖에  
 의지하는 -기대는  
 의학적인 관점 - 의학에서, 의학 쪽에  
 서  
 이미 - 벌써

이유 - 까닭  
 이해가 안 된다 - 알 수 없다  
 인내심 - 참을성  
 인상을 쓴다 - 얼굴을 험악하게 한다  
 일단 - 우선  
 일당 - 날쌔  
 일인당 - 한 사람 앞  
 일일이 - 하나하나  
 일일이 - 하나하나, 날날이, 한집한집  
 일제히 - 한꺼번에  
 임무 - 일  
 입구 - 어귀, 들목, 들머리  
 있다 - 있다  
 자정 - 한 밤  
 작업복 - 일옷  
 작업장 - 일터  
 장소 - 곳  
 전 -부침 , 지짐  
 전혀 - 조금도, 아주  
 전형적인 - 본보기가  
 절절하다- 사무치다  
 접근해 - 가까이  
 정곡을 찌르다 - 바로 맞추다  
 정원 - 뜰  
 정적 - 고요  
 제외하고는 - 빼고는  
 제일 - 가장, 첫째, 맨  
 조준하다 - 겨누다  
 조치를 취하겠다 - 처리하겠다  
 줄지에 - 갑자기  
 주변(주위) - 둘레  
 주인공 - 중심인물  
 증기 - 김  
 진가 - 참값  
 진지하게 - 참되게  
 집요하다 - 끈질기다  
 착각 - 잘못 생각  
 착각했다 - 잘못 생각했다, 잘못봤다  
 철거되었다 - 뜯겨나갔다

체계적인 - 체계가 선, 체계를 세운  
 체념한 - 생각을 버린  
 초조하다 - 애가 타다, 마음이 타다,  
 조마조마하다  
 최소한 - 적어도  
 출발 - 나서다,  
 출신 - 사람  
 취급 - 대접, 다룬다, 처리한다  
 치열한 - 맹렬한, 사나운  
 치열한 - 세찬, 뜨거운  
 컬러 - 빛깔, 천연색, 자연색  
 탄로났으니까 - 드러났으니까, 들켰으  
 니까, 들통났으니까  
 탄생 - 깨어나는  
 택하여 - 가려서  
 터득한 - 알아낸  
 특히 - 더구나, 유달리  
 특히 - 유달리  
 평당 - 한 평에  
 포기한다 - 그만둔다  
 포기한다 - 내버린다. 그만둔다.  
 표정 - 얼굴  
 풍만하다 - 포동포동 살찌다, 살이 오  
 르다  
 하나의 알 - 알 하나  
 한 무리의 아이들 - 한 무리가  
 한명 - 한 사람  
 항상 - 늘, 언제나  
 했어도 - 했지만  
 향했다 - 갔다  
 허공 - 공중  
 현관 - 문간, 나들문  
 현관문 - 문간문  
 호시탐탐 - 눈을 부릅뜨고  
 화사한 - 사치스러운, 화려한  
 환기를 한다 - 공기를 바꾼다  
 황당하다 - 어쩔 줄 모르다. 갈팡질팡,  
 찼찼매다.  
 회색 - 잿빛  
 후문 - 뒷문

글 쓰다보면 머릿속에 흰하게 불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글의 흐름과 방향이 잡히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 이때부터 글쓰기는 속도를 낸다. 나의 글쓰기는 이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그 이전까지는 암중모색의 과정이다.

통찰은 거창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화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방이 캄캄하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주변을 분간하기 시작한다. 낮선 동네에 가면 동서남북이 구분되지 않는 캄캄이 상태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모습이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림 퍼즐을 맞추는 때에도 전체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고 파악되는 시점이 있다. 바로 그때가 통찰의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별안간 찾아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하는 해법이 문득 떠오르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하는 깨달음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낀다. 작가들은 이를 뮤즈, 즉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여신이 찾아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직관은 그럴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런 직관이 순간적으로 온다. ‘척 보면 압니다.’라는 직관은 유사한 사례를 많이 경험한 결과다. 남다른 안목과 식견으로 앞을 내다보는 혜안도 비슷하다. 직관이나 혜안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가질 수 없다. 적어도 내 경험으론 그렇다. 하지만 통찰은 다르다. 여섯 단계의 노력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첫째, 자기만의 관심 주제나 분야를 갖는 게 먼저다. 유독 좋아하고 즐기는 분야나 주제가 있어야 한다. 통찰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분야나 주

제에서 일어난다. 관심사가 없는 사람에게 통찰은 찾아오지 않고, 관심없는 부문에서 통찰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관심 분야는 글쓰기에 관해 말하고 쓰는 일이다. 이전엔 그것이 ‘소통’이나 ‘조직 문화’인 적도 있었다.

둘째, 관심 갖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그 분야에 관해 공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것에 관해 많이 알아야 한다. 머릿속을 그것으로 채워야 한다. 씨 뿌리지 않고 꽃은 피지 않는다. 맨땅에 헤딩해 봤자 피만 난다. 통찰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 입력을 해야 한다.

셋째, 공부한 내용을 자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입력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드는 방법은 사유와 사색, 비판과 반론이다. 공부한 내용을 연결, 결합, 융합, 추리, 추론, 예상, 예측, 전망해보는 사유와 사색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공부한 내용에 관해 반론, 반박, 비판, 이의 제기, 비평해봐야 한다. 칼럼 하나를 읽으면 한 줄이라도 내 생각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영상 강의 30분 들으면 내 의견 한 마디라도 건져야 한다.

넷째, 말해봐야 한다. 실제로 내 것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아니 혼자말로라도 출력해봐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빠져 있어야 한다. 말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을 더 숙성시키고 소통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

다섯째, 풀어야 할 숙제, 응답해야 할 질문이 있어야 한다. 통찰을 필요로 하는 문제나 사건, 사태가 존재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통찰을 뇌는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이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좋

### [ 알립니다 ]

\* 계간 퓨전수필은 협회 회원 및 동호인, 문학 단체장께 1권~3권을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회 홍보용으로 책자가 더 필요하신 분은 협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 재미수필 웹사이트: jaemisupil.com

글쓰기에 유익한 자료와 정보 소개 -추천수필, 문학동네, 수필 평론과 이론, 우리말 바꾸기 등,  
로그인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현재 협회 회원 자격을 갖췄어도 웹사이트 가입을 미루고 계시는 회원들께 알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가입 절차를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jaemisupil2021@gmail.com

협회 활동을 중단한 회원에게는 등업에 준하여 하향 조정합니다.

### [ 회비납부 상황 2022년 1월 ~ 6월 30일 ]

연회비(\$120) - 임선주 노영매 권조앤 전로사 박종진 김탁제 박연실 김혜자 김수영 김흥기 이해숙

조모세스 유영주 김민정 박진희 김영교 공순해 배헬레나 조성환 조옥동

이사회비(\$200) - 이현숙 한영 이리나 김화진 유숙자 정조앤 김석연 성민희 김카니 최숙희 백인호 조만연

출판비(\$150) - 김석연 성민희 이해숙 유영주 김수영 김민정 김카니 정조앤 박진희 김영교 박종진 공순해

배헬레나 임선주 조성환 김화진 이희숙 백인호 박연실 유숙자

협회 후원금 - 한영 이리나 김탁제 정조앤 이현숙 김석연 김카니 박진희 배헬레나 김화진 조만연 백인호

서재개설(\$50) - 노영매 / 재미수필 23집 판매 - 노영매 박종진 / 퓨전수필 후원금 - 이일영(Lv)

본 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jaemisupil2021@gmail.com

연회비 \$120 / 이사회비 \$200 / 출판비 \$150 / 서재 개설비 \$50-서재 개설비 (8월 30일까지 납부 바람)

Pay to Order : KEAA 김자넷 Janet Kim


주소: 22533 S. VERMONT AVE., UNIT 57, TORRANCE, CA 90502

다. 비가 잘 오는 상황에서는 비를 오게 하는 방법  
을 찾을 리 없고, 그에 관한 통찰이 일어날 터이  
없다.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의제나 실행  
과제를 정하는 사람이 통찰력을 가질 확률이 높  
다.

끝으로, 통찰력이 잘 일어나는 환경에 자신을 갖  
다 놓아야 한다. 나는 책을 읽거나, 카페에서 노닥  
거리거나, 지하철에서 멍 때리거나, 산책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동영상 강의  
를 들을 때 ‘아하!’하는 통찰이 일어난다.

이때 찾아오는 통찰은 여섯가지 모습이다. 조각  
이 맞춰져 전체 윤곽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거나,

본질이나 원리, 이치를 깨닫거나, 사태나 사건을  
일으킨 구성요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을 갖게 되거나, 배경, 맥락,  
취지가 이해되거나, 영향과 파장이 예측되거나,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  
거나.

누구에게나 통찰은 찾아온다. 70억 인류는 저마  
다의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벼리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뿐이다. 나는  
오늘도 글쓰기에 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읽고 생  
각하고 말한다. 그리고 반갑게도 ‘통찰력’에 관한  
통찰의 순간을 맞았다. 유레카! 

**김수영**

파란 하늘아래  
란제리 잠옷을 입고 왜 설치노?  
햇살 밝은 대낮에  
살갑지 않는 행동은 금물이어라. 에헴!

**김카니**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옆에  
란(난)도 심었더니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살며시 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네요

**신혜원**

파아란 하늘 닮은 바다가 낳은  
란(알)은 어디로 흩어졌는가  
햇살 따라 살길 따라 멀리 가 봐도  
살이 닿는 곳은 제 어미 있는 곳

**정조앤**

파릇파릇 싹이 돌아나는 봄  
란도셀을 메고 입학식에 갔었지  
햇병아리 초등 시절을 생각하니  
살구빛 그리움으로 다가오네

**김영교**

파리 한 마리  
란데뷰 짝 찾느라 두리번  
햇살에 눈부셔 그만 땅에  
살포시 엎드린다

**박진희**

파격적인 구로사와 아키라의  
'란' 영화는  
햇 표현주의를  
살 떨리게 표현했을까

**배헬레나**

파아란 세도나 하늘 아래  
란초 꽃밭 반가워  
햇살 눈 부시지 않아 좋아  
살갓에 와닿는 힐링 터치!

**권조앤**

파랗고 잔잔한 호숫가  
란 처럼 흰 꽃이 되어  
햇님 앞에 수줍게  
살살 다가 갈까?

**박유니스**

파시 한 모퉁이  
란제리, 잠옷, 월남치마 늘어놓고  
햇수로 어언 30년의 이민살이  
살같이 흐른 세월 세어보네!

**김송희**

파도 넘실거리는 하얀 바닷가  
란(난) 좋아하네  
햇빛과 어우러진 파란 햇살  
살갓을 닿을 때 행복함에 눈물이 나네

**신순희**

파김치 맛있게 담그고  
란 화분 정성껏 키우고  
햇반으로 밥상 차려도 괜찮아  
살림하는 남자 나는 좋아

**이리나**

파도 타는  
란제리 입은 소녀를  
햇살 따가운 날  
살짝 보았네



## 협회 소식 및 회원 동정

7월 모임-이희숙 출판기념회(7월 30일 11am) 장소: 집 정원에서  
<재미수필> 24집 작품 마감- 6월 30일  
6월 모임- 장소: 엘에이 강남회관 (6월 25일 11am)  
제17회 재미수필 신인상 작품 공모- 원고마감: 7월 31  
5월(Zoom) 강사 최원현 한국수필 이사장 (5월 21일 5pm)  
<재미수필> 유튜브 채널 방송 시작 (5월 6일)  
조만연 & 조옥동 선생님- 보스턴으로 이사 (7월 5일)  
이정호 부회장- 퇴원 후 병원을 오가며 재활 치료 중  
성민희 전 이사장 어머니 소천- 한국 장의사 (5월 14일 11am)

## 타 문인협회 소식

미주문협 40주년 문학캠프 - 8월 20일 10am / 카페 '헤이리'  
제5회 운동주 미주 문학상 공모 - 마감: 8월 31일  
제28회 미주문학상 공모 - 마감 7월 25일  
제8회 미주가톨릭문학상 및 신인상 공모-마감: 7월 10일  
제11회 고원문학상 공모 - 마감 6월 30일  
미주한국소설 12호 출간(2022) - 무료배송: (213)700-6667  
미주시조 창간호 및 4인 시조시인 출판기념회 (6월 25일)  
재미시협 6월 (Zoon) 강사 박진임 교수 (6월 18일)  
미주문협 4·29 LA 폭동 30주년 기념 『흉터 위에 핀 꽃』 출간  
미주문협 5월(Zoom) 강사 김종광 소설가 (5월 28일)  
재미시협 5월 (Zoon) 강사 홍용희 교수 (5월 21일)

## 편집 후기

상반기를 되돌아본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시간이었다.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퓨전수필  
여름호를 엮으며 변화를 줬다. 모두에게 평안을... <정>

드디어 편집을 해 봤습니다.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편집일  
은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이 작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건강하시고  
건필하세요. <이>

창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2년

여름호(5, 6, 7월)

통권 제 78호

발행일 2022년 7월 10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http://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mailto: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mailto:sook1961@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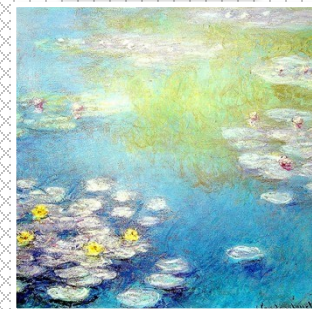
편집인 정조앤

[jchung315@yahoo.com](mailto:jchung315@yahoo.com)

이리나

[llee439@yahoo.com](mailto:llee439@yahoo.com)

## 표지 그림



클로드 모네(1840~1926)

지베르니의 수련화